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서재응, KIA에 오면...



3년간의 끈질긴 구애 끝에 서재응을 품에 안은 KIA는 내년 시즌 상위권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KIA는 일단 내년 시즌 서재응이 최소 12승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선발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서재응은 또 전력 외에도 광주 야구 열기의 확산 효과와 10년간 선전 미국 야구에서 보고 배운 노하우 전수 등 그 시너지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막강 마운드... '투수왕국' 부활 기대

내일 귀국...17일 입단식

▲1선발 내게 맡겨라
올 시즌 KIA가 최하위에 그친 것은 선발진의 부상에 따른 마운드 약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 KIA는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에이스 역할을 하던 세스 그레이싱어가 일본으로 떠나면서 두자릿수 승리 이상 거둔 투수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선발진이 부실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세스 에서는 부진과 부상으로 5월 중순 방출됐고, '토종 에이스' 김진우는 올해 심각한 제구력 불안에 발목이 잡혀 8월 초 임의탈퇴로 팀을 떠났다.

또 올해 재기에 성공한 '고참' 이대진은 어깨 부상이 재발해 재활군을 오갔고, 이상화, 양현종, 오준형, 문현정 등 젊은 투수들은 노련미 부족으로 기대만큼 해주지 못했다.

그나마 올해 선발로 처음 돌아선 3년차 윤석민이 평균 자책점 3.78로 고군분투했지만 타선 지원 부족으로 아쉽게 7승18패에 머물렀다.

따라서 구단은 내년 시즌 든든한 '에이스'의 임무를 서재응에게 부여했다.

조범현 감독은 "서재응이 12승 이상은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재응과 외국인 투수, 윤석민,

12승 이상 가능...선발진 '든든' 방망이에도 활력 전력상승 예상
최희섭과 '스타 마케팅'에 기여

전병두, 이대진 등으로 선발진을 꾸린다면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5선발진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또 "이범석, 임준혁, 양현종, 고우석, 문현정 등 기량이 뛰어난 백업 투수들도 풍부한 마운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젊은 후배들에게 노하우 전수
서재응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배운 선전 야구 경험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젊은 마운드를 다수 보유한 KIA측도 이러한 서재응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30세인 서재응은 장성호와 김상훈, 홍세완 등과 동갑내기로 팀내 고참급에 속하는 만큼 마운드는 물론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제2의 야구 열풍 기대
메이저 리그 출신인 최희섭이 공식데뷔전을 가진 지난 5월 19일 잠실 두산전은 3만 500석이 매진됐고 20일에도 2만 8,894명의 팬이 잠실을 찾았다. 잠실별을 뒤흔든 '빅쇼' 광풍은 같은날 22일 '빛고을' 광주도 감타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땀병 더위에도 입장관중은 2007 시즌 평일 흥 풍군(3천 505명)을 훌쩍 뛰어넘는 1만여명이 들어왔고, 예매 속도도 평일 평균 50매 보다 30매나 늘어난 1천500매가 팔렸다.

지난 2001년 일본에서 돌아온 '이종범 효과' 이후 광주에서 7년만에 맞보는 야구 열풍이었다.

KIA는 내년 시즌에도 '서재응 효과'로 구름 관중이 불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A는 메이저리그 출신인 '서재응-최희섭'을 하나로 묶는 스타 마케팅을 준비중에 있다.

김조호 KIA 단장은 "서재응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친근한 성격과 잘생긴 외모 등 스타성을 두루 갖춘 선수"라면서 "내년 시즌 구단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남자들 맹활약 렉서스컵 골프 2연패

한국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아시아 여자 프로골프가 미국, 유럽, 호주 선수로 구성된 세계연합팀과 맞붙은 대륙대항전 렉서스컵 골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12명 가운데 9명이 한국 선수로 채워진 아시아팀은 9일 호주 퍼스의 바인스리조트골프장에서 1대1 매치플레이로 펼쳐진 대회 최종 라운드를 4승 3무 5패로 마쳐 승점 5.5점을 보였다.

1라운드 6전 전승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6전 3승 1무 2패를 올렸던 아시아팀은 3라운드 합계 승점 15점을 따내 9점에 그친 세계연합팀에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2005년 제1회 대회에서 세계연합팀에 무릎 꿇었던 아시아팀은 작년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며 세계여자골프의 주류가 아시아로 옮겨왔음을 알렸다.

특히 아시아팀의 주역인 한국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퍼스의 바인스리조트골프장에서 열린 렉서스컵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아시아팀의 박세리(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신지애(" 네번 째) 등 선수들이 우승컵을 인은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FA 최대어' 이호준 4년간 34억...SK 잔류

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내야수 이호준(31)이 4년 총 3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SK 와이번스에 남았고 같은 팀에서 뛰었던 투수 조웅천(36)도 2년 총 8억원에 잔류를 선택했다.

올해 창단 후 첫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SK는 9일 이호준과 계약금 10억원과 연봉 5억원, 연간 1억원씩 옵션을 포함한 4년 동안 총 34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협상 당시 이호준이 요구했던 총액 42억원(계약금 18억원과 연봉 5억원, 매년 옵션 1억원)보다 8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애초 4년 기간에 27억원을 제시했던 구단은 40억원으로 몸값을 낮춘 이호준에 호응해 30억원으로 올랐고 10억원 차이였던 양측 주장의 중간선에서 4년 타자 자존심을 살려주며 계약서에 사인했다.

SK는 또 불펜 투수 조웅천과도 2년 동안 옵션을 포함해 8억원에 계약에 합의, FA 시장에 나왔던 두 명을 모두 붙잡는데 성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우즈 미안해" 타깃월드챌린지 출전 사양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내년 시즌을 대비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세계 정상급 선수 16명을 초청해 여는 특급 대회 타깃월드챌린지 출전을 사양했다.

타깃월드챌린지를 주최하는 타이거 우즈 재단은 14일부터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우드크스의 서우드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하면서 최경주가 빠졌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이 대회에 나서려던 최경주는 11월 말까지 아시아 원정 3연전을 치르고 최경주 자신 재단 창설 등 바쁜 일정을 보낸 탓에 내년 시즌을 대비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집에 머물며 체력 단련 등 내년 시즌을 대비한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최경주는 내년 1월4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개막전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한편 최경주가 빠지면서 브렛 웨터리(미국)이 '대타'로 선발받는 행운을 누렸다.

이강석 시즌 첫 금

ISU 월드컵 4차 男 500m...세계랭킹 1위 문준 동메달... 이규혁·이기호 톱 10 진입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이강석(22·의정부시청)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자신의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이강석은 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계속된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4초 92로 결승선을 통과, 일본의 단거리 간판 가토 조지(34초94)를 0.02초 차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여자 1,500m 디비전B(2부리그)에 출전한 이주연(20·한국체대)은 2분0초72로 2위를 차지했고, 김유림(의정부부고)은 2분0초19과 이소연(한국체대)은 2분0초46은 각각 4위와 11위에 올랐다.

이밖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병욱(불암고)은 남자 5,000m 디비전B에서 고군분투했지만 6분46초81로 17위에 그쳤다.

9일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500m에서 한국의 이강석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프터골프 단일 투어 추진

아시아의 골프 강국 일본과 한국, 호주를 아우르는 투어 대회가 추진되고 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투어의 길다 한 회장은 PGA 투어와 EPGA 투어에 상응하는 아시아지역 단일 투어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 투어가 계획대로 2009년에 출범한다면 아시아 골프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주로 출전해온 기존 아시아투어에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까지 편입시켜 판을 키워보자는 계획을 갖고 각국의 골프협회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분기업

특별회 회원권

골프 황 시세(1년)	골프 황 시세(1년)
광 주 3,500	광원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 주 8,200	일 평 7,400

상위 문의 (062)351-0095